

남원시, 여름철 노인 보호 총력

노인맞춤돌봄·스마트돌봄 등 4개 분야 중심 폭염 대응 안전관리 체계 가동

남원시가 여름철 폭염에 따라 취약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6월부터 9월까지를 중점 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노인맞춤돌봄, 스마트돌봄, 노인복지시설, 노인일자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폭염 대응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인 남원노인복지관, 남원시노인복지관, 지리산노인복지센터 등을 통해 총 3,050명의 돌봄대상자에게 폭염 대응 서비스를 위한 보호대책을 사전에 수립하고, 전담관리자와 생활지원사를 중심으로 안부확인, 행동요령 안내, 냉방용품 지원, 비상연락망 점검을 이행하고 있다.

스마트돌봄 분야는 응급안전장비 확충, 인공지능(AI)기반 돌봄서비스 강화(총 1,738가구 설치)로 IT 기반 비대면 돌봄체계를 구축, 독거노인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스마트돌봄플러그, 인공지능(AI) 안부전화 서비스 등을 통해 실시간 안부확인 및 응급상황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생활지원사의 방문 돌봄을 보완해 응급상황에 기여하고 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하절기 풍수해·혹서기 대비 점검을 종합적으로 실시해, 총 55개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소방, 전기, 가스, 위생, 감염



남원시가 여름철 폭염에 따라 취약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6월부터 9월까지를 중점 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노인맞춤돌봄, 스마트돌봄, 노인복지시설, 노인일자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폭염 대응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병 대응 등의 점검을 완료했다.

499개 경로당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고, 8월 31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쉼터 역할을 수행 중이며, 병방지기 점검과 냉방비 지원 등도 완료되어 쉼터 기능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7개소 및 23개 읍면동을 통해 총 5,264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사업 분야도 폭염 대비 특별안전지침을 마련해 운영, 혹서기(7~8월)에는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의 실외작업을 지양하고, 휴식 시간을 확대, 휴식공간 확보, 물도시·

물통·모자·선크림 등 안전물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안전교육도 강화했다.

2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읍면동장 1일 1가구 방문과 함께 지역 내 취약노인을 중심으로 보호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사시 응급 보고체계 가동, 정보전달, 이행점검 등을 통해 주민 밀착형 대응을 실현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 기관이 협력하여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일 구하는 날’ 취업박람회

9월 19일 개최... 29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순창군이 지역민에게 폭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순창군 일 구하는 날' 취업박람회를 오는 9월 19일 개최한다.

이에 따라 군은 박람회 참여 기업들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9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순창군 장애인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며, 관내 및 인근 지역의 20개 구인기업과 150명의 구직자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박람회 행사장에서는 △기업별 채용 상담관 △취업지원관 △홍보관 △현대행사관이 운영되며, 참가기업은 현장에서 직접 취업 상담 및 현장 면접을 진행하고, 구직자들은 구직 등록 및 취업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증명사진 촬영, 퍼스널컬러 진단, 두피 진단, 행운팔찌 만들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운영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9월 29일까지 참가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해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에 방문하거나 이메일(yollet@korea.kr)을 통해 신청하고, 주소지, 고용 우수기업 여부, 구인 인원수, 구인 직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9월 5일에 최종 확정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취업박람회는 기업에게는 필요한 인재를, 구직자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연결해 줄 좋은 만남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남원시, 디지털리더스클럽 부트캠프 성료

남원시가 SW미래채움 전복센터와 연계하여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리더스클럽' 부트캠프를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군산대학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캠프는 SW미래채움(전북) 장기교육과정을 이수한 초·중등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었으며, △세만큼 메타버스 체험관 견학 △파이썬 기초 및 게임 개발 실습 △아두이노 기반 IoT 실습 등 실무 중심의 풍성한 실습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SW·AI 실습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주력했다.

또한 도내 SW·IT 산업 현장 탐방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 산업 구조와 디지털 기술의 접점을 이해하고,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히는 데도 기여했다.



남원시는 이번 부트캠프를 통해 우수 수료생 20명을 우선 선발하고, 이중 최종 10명을 선발해 하반기 중 해외 선진 IT 기업 및 기관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학생들이 글로벌 디지털 산업의 흐름을 직접 체험하고, 미래 기술 인재로서의 비전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치매안심이웃 플러스·단비봉사단 본격 추진

남원시 치매안심센터(센터장 한용재)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 치매환자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치매안심이웃 플러스'와 치매극복 '단비봉사단' 활동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활동은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4개 지역 내 독거 치매환자 가정 30가구가 대상이며, 치매환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봉사자들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공간을 정돈하고, 주변 환경을 청소하는 것은 물론 말벗이 되어



정서적 안정을 돕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노암동·왕정동·금동 3개 지역은 대한적십자사 남원시 봉사회가 '치매안심이웃 플러스' 활동, 운봉읍은 치매극복 '단비봉사단'이 활동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아쿠아 페스티벌’ 역대급 성과

유료 관람객 총 9800여명 방문 집계... 1억2000만원 매출 달성

'2025 임실 아쿠아 페스티벌'이 축제 기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그늘막 등 대형 돛 시설과 콘텐츠 인기로 역대급 성과를 이루며 마무리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16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이벤트 광장에서 열린 임실군의 대표적 여름 축제인 임실 아쿠아 페스티벌에 총 9천800여 명의 유료 관람객이 방문한 가운데 1억 2천여만 원의 입장료와 판매 수익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축제 기간이 7일이 단축되었음에도 입장객은 늘어나고, 매출도 오르는 등 지난 해보다 더 큰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아쿠아 페스티벌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올해 아쿠아 페스티벌은 다양한 시설 보강과 신나는 콘텐츠, 푸드트럭 등 먹거리로 2017년 첫 개최 후 방문



객들의 가장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입장객 중 70%는 수도권과 타 지역의 관광객으로 집계되면서 2025 임실방문의 해를 맞아 치즈테마파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다변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는 시설과 콘텐츠를 대폭 개선한 점이 큰 호응을 이끌어낸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폭 30m, 길이 50m 규모의 초대형 돛 시설로, 한낮의 무더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물의 수온 상승을 억제하여 지난해 폭염 속에서 발생했던 녹조 현상을 사전에 방지해 쾌적하고 위생적인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축제의 열기는 물속에만 머물지 않고, 주말마다 펼쳐진 DJ 파티, K-POP 댄스 공연 등 흥겨운 문화 프로그램이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으며, SNS와 입소문을 타고 '물여름' 핫한 물놀이 명소로 떠올랐다.

이 밖에도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요원 20명을 상시 배치하고 수질 관리와 청결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며 모든 연령대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심 민 군수는 "올해 아쿠아 페스티벌은 축제 기간은 짧아졌지만, 알차고 내실 있게 준비한 결과 더 큰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머무르고 싶어지는 임실을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 통

국립임실호국원,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행사 다채

국립임실호국원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계기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 행사로 독립운동가의 삶과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우표로 보는 독립운동가 특별기획전'이 오는 17일까지 제1충령당에서, '국가 상징 태극기 특별기획전'도 같은 기간 제2충령당에서 진행되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대형 태극기와 슬로건(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도 현충관 외부에 설치 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8일에는 전북지방경찰청 신임 경찰관 100여명이 참여한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이며, 현충탑 참배와 함께 '태극기 퍼포먼스' 등을 통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신통일한국 피스로드' 순창군 통일대장정' 성료

순창군에서 지난 9일 순창한우명품관에서 '신통일한국 피스로드 2025 순창군 통일대장정'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광복 80주년, 신통일한국을 향한 평화의 발걸음'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행사는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향한 군민들의 염원을 모으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평화통일지도자 순창군협의회(회장 최길식)와 (사)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순창군지회(회장 설동찬)가 공동 주관하고, 피스로드 2025 순창군 통일대장정 실행위원회가 주최했으며,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관내 사회단체장, 다문화가족 등 7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 남북예술단 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환영사, 대회사, 축사, 초청 강연, 평화메시지 낭독, 통일의 노래 및 만세삼창, 기념촬영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한글문화교류연합회 미스부치 게이이지 회장이 K-컬처의 힘과 지정학적으로 본 대한민국의 미래와 피스로드'를 주제로 진행한 초청 강연은 큰 호응을 얻었다. /순창=이왕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